



5면

전주시민주당, 역대 첫 당정협의회 개최

#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2년 8월 22일 월요일 (음 7월 25일) 제3083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유학생 비자발급 제한대학 해제를”

지방의료원 손실보상 기간 2년 이상 확대 등  
김관영 도지사, 민선8기 첫 시도지사협 총회서  
지역활력 방안 3개 · 대정부정책건의의 3개 제안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19일 제5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유학생 비자발급 제한 대학 해제'를 포함한 지역활력 방안 3개 사항과 대정부정책건의의과제 3개 사항을 적극 제안했다. 대정부정책건의의과제 3개 제안사항 내용은 △지역대학의 생존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비자발급 제한 대학 일괄 해제 및 평가 제도 개선 △농·산업 현장에서 고질적인 일손부족 해결을 위한 인구조형 10% 범위 내 이민 비자 등 추천 권한 지자체 부여 및 확대 △특화형 인재양성과 기업의 변화되는 수급 요구에 탄력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지역대학의 정원 및 학과 조정 권한 위임 등이다.

이밖에 시·도 협력 3개 제안사항으로 지방의료원에 대한 손실보상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최소 2년 이상으로 확대, 2023 새만금 세계잡버리와 2023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시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회의는 민선 8기 이후 첫 시도지사협의회 총회로써

시·도 공동현안에 대한 대처와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균형발전과 지역분권을 위한 전북도 제안사항에 17개 시도가 적극 동참해 지역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미래를 향한 힘찬 날갯짓을 펼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총회는 민선8기 시도지사 임기 시작 후 처음 갖는 회의로서 회장에는 이철우 경북지사가 선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과제의 효과적 추진과 대응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개최사항, 2022 대전 UCIJ 총회 개최 건 등이 보고됐으며, 시도별 제안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보고된 중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과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가칭)의 지방 참여를 확대하고 민선8기 정책과제의 정립 및 우선순위 설정을 통하여 전국 시·도 현안이 반영된 정책과제의 정부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시도지사협의회의는 밝혔다. /김경수 기자



제50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가 지난 19일 서울 프레스센터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오영훈 제주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시도지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 전북도 무형문화재 7건 신규 지정

매듭장 김선자 · 판소리 김세미 · 산조 송화자 등  
도 지정 보유자 56종 73명 17개 단체로 늘어나

전북도도지사 김관영은 지난 16일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위원회를 개최해 7건을 전북 무형문화재로 새롭게 지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전북도보를 통해 '전북 무형문화재 종목지정 및 보유자(보유단체) 인정' 사항을 고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도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단체)는 현재 54종 67명 16개 단체에

서 56종 73명 17개 단체로 늘어난다. 이번에 지정된 전북 무형문화재는 매듭장 김선자, 판소리(수궁가) 김세미, 자수장(공수) 이정희, 자수장(민수) 박미애, 가야금산조(산조) 송화자, 영산작법보존회 지화장엄 분야 보유자 김완섭(도흥스님), 삼베짜기 보유단체 영농조합법인 치목삼베마을 등 총 7건이다.

무형문화재 신규 지정은 무형문화재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지정 가치가 높다는 조사자들의 평가와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결과 전승 보전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다. 앞서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14일까지 한 달 동안 전북도보를 통해 무형문화재 지정을 예고했다. 도는 무형문화재 지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문화재청 평가 기준을 준용하는 등 지정 절차에 내실을 다졌다. 종목 지정은 전승가치와 전승환경 등 13개 가지 항목을 평가했다. 보유

자 및 보유단체 인정의 경우는 전승활동, 전승환경, 전승가량, 전승역량, 전승기반 등 10개 항목을 평가했다. 이번에 지정된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는 고시일인 19일을 기준으로 무형문화재로서 활동을 시작한다. 이들에게는 매월 100만원의 전승활동비와 연 1회 개인 250만원·단체 340만원의 공개행사비가 지급된다. 보유자의 전수장학생에게는 매월 20만원의 전수장학금이 지원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무형문화재 보존과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무형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다양한 콘텐츠로 개발로 문화 예술의 고장 전북의 위상을 높이고 관광상품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 전북·경북, 관광 활성화 '한마음'

전북도(도지사 김관영)와 경북도(도지사 이철우)가 지난 18~19일 경북 울진에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호·영남 관광교류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관광관련 공무원, 교육청, 관광협회, 여행사 등 60여명이 함께 했으며, 코로나19 관광트렌드 변화에 따른 관광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전북도는 전북의 관광자원 소개 및 교육여행지원사업 안내, 전북 투어패스, 2023년 국제행사 등을 홍보하여 지역 관광자원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고, 경북 관계자들에게 전북 관광에 흥미를 불러일으켰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전했다.

특히, 그간 경북과의 관광교류전을 통해 교육관광(수학여행단)분야도

내유치 실적에 타도에 비해 눈에 띄는 성과를 나타낸 만큼 민관 관광관계자 교류를 활성화하고 교육청과의 밀착 공조를 통해 교육 여행 확대를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관광자원 설명을 통해 대표적인 관광지인 전주한옥마을 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팔복예술공장 이영춘가족, 익산내비위성당 정음무성서원, 이리 당문화마을 등의 숨겨진 관광지를 체험활동과 함께 소개했다.

이와 함께, 내년 전북에서 개최되는 2023 새만금 세계잡버리대회와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를 홍보했다.

이에, 경북도 관계자는 “전북의 대표관광지 외에도 여러 숨겨진 관광지들과 다양한 관광자원들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학생들에게도 좋은 학습의 장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북도 관광총괄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양 지역 간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어 경북지역에서 전라북도를 많이 방문해 주기를 희망한다”며 “전북과 경북의 화합이 관광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민간 관광관계자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관광객유치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